

2022년 1월 8일 “예수님의 비유(25) 솔로몬의 의복보다 영화로운 백합화”(마 6:25-34)

예수님 당시에는 필수품 공급이 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1] 걱정하지 말라

옷은 다양한 용도를 지닙니다. 생필품으로 사용되고, 자기를 표현하고 더 나아가 직위나 능력을 과시하는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몸의 운동력 향상을 위한 현대 wearable robot 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옷은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 수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 백합화를 가리키시며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부유했던 시대의 왕의 옷은 얼마나 비싸고 화려했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백합화와 들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까요?

[2] 무엇보다 존귀한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요 17:2 참고). 생명은 사람, 식물, 동물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상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탄생-성장-사멸의 단계를 겪습니다. 유한한 기간을 삽니다.

그러면 유한한 운명을 지닌 생명이 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담아내고 멋지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 43:7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빛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진선미(참됨/선함/아름다움)를 드러내고,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영광: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남을 의미).

작은 풀과 꽃 하나가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비추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반면 솔로몬의 의복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제작했고 수를 놓고 색상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로 환산되는 가치로 귀결되며, 다른 것과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값을 매길 수 없는 들풀과 솔로몬 의복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가진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삽니다. 그런 내 삶에 창조주께서 생명의 진리와 사랑을 심어주셨으니 그것을 발견하고 비추어 내어 영화로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때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돌봄/섬김)에서 이 핵심이 흐트러지면 결국 무의미에 빠질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가 심겨진 인생과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의 시작은 생각에서 옵니다. 너무 없는 삶을 살까 봐, 낙오될까 봐, 인정 못 받을까 봐, 누가 먼저 사별할까 봐 등...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소 극복하고 있다면 지금은 생명의

본분을 찾아, 하나님의 주신 가치(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양선 등...)를 내 안에 담고 드러내어 주님께 돌려드릴 때 삶의 충만한 의미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욱 깊은 체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랑스러운 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참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영화롭다는 주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나의 삶과 사역(돌보고 섬기는 일들)에서 중심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